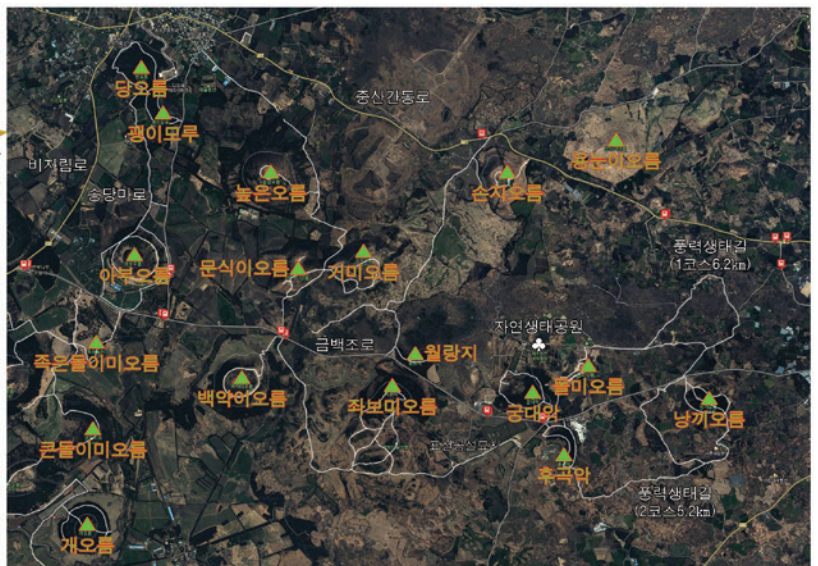


# 방기인(放送技術人)의 제주탐방 - 14 백악이오름과 풍력생태길

가을이 깊어가는 제주 동남부 벌판이 누렇게 물 들어갈 즈음 소위 오름 왕국이라고 하는 그곳 제주와 서귀포 동쪽 들판 구 좌표선들에 펼쳐진 오름군을 탐방하면서 바람 따라 풍력생태길을 산책한다. 오름 탐방에 욕심을 부리면 날 저무는 줄도 모르는 고달픈 하루가 된다. 가볍게 산행하는 마음이면 이런저런 오름의 묘미를 즐길 수 있고 바람과 함께하며 열심히 일하는 풍력발전기를 따라가면 힘을 충전하면서 자연 생태를 관찰하는 천진난만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금백조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마주 보며 유혹하는 백악이·좌보미오름 대 문석이·거미오름을 탐방하고 풍력생태길을 이끄는 궁대악, 돌미오름을 가로질러 바람 따라 솔솔 풍력길을 따라가면 낭기오름이 동남부의 전망을 가까이 펼쳐준다. 수산한 못을 지나면 억새밭 사이로 조성된 생태길을 따라 수산사거리까지 돌아오는 오름 탐방·바람 따라가는 산책길이다.



## 백약이오름

금백조로를 따라가면서 차창으로 보이는 오름들을 골라가면서 바람 같은 마음으로 탐방할 수 있는데도 의지의 두벽이 오르미는 금백조로를 땀 뻘뻘 달리는 차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조금 지겹도록 걸어서(3.7km) 탐방로에 왔다. 스무남대의 차들이 간이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입구를 막은 차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다. 무밭을 가로질러 철조망을 넘어 오름길로 접어들었다. 목책과 계단으로 이어지는 S자 경사길을 지나 정상으로 이어지는 어린 소나무숲은 야자매트로 탐방길을 내어 오름을 보호하고 있으며 정상 잔디탐방길까지도 야자매트로 백약이오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랙모양의 정상·분화구 능선을 따라가면서 사방팔방을 보는 탁 트인 시야는 오름 왕국을 지휘하는 한가운데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동부제일봉 높은오름을 기점으로 하여 문석이와 거미오름이 이어가다 금백조로가 북동경계를 지으면서 동남으로 좌보미오름을 지나 영주산까지 왕국의 절반을 보여주고 기점을 향하여 개오름, 민오름, 거센세미오름, 아부오름이 있어 성벽을 이룬다. 큰 분화구를 중심으로 3개의 작은 봉우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탐방길은 밋밋하지 않아서 좋기도 하다. 동쪽 아래에 조성된 목장초지는 한여름에는 더 푸르리라. 오름 정상 분화구 능선을 따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백약이오름은 새겨지고 있었다. 옛부터 오름에 자생하는 약초의 종류가 백 가지가 넘는다 하여 백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한자로는 백약약百藥岳이라고 한다. 등성이는 잔디운동장처럼 넓게 펼쳐지면서 동글넓적한 굽부리[분화구]를 감싸고 있는 원뿔 모양의 산으로 총면적은 약 581,463㎡, 둘레 3,124m, 높이 356.9m, 비고 132m이다. 남서사면 기슭에는 삼나무숲이 치마를 두르고 있고 북동사면은 개량 초지가 조성되어 여러 가지 약용식물이 자라고 있다. 동북쪽 비탈은 주로 초지이지만 나머지 비탈 대부분은 삼나

무와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오름 안에는 약용으로 쓰이는 복분자와 층층이 꽃·향유·쑥·방아풀·꿀풀·쇠무릎·초피나무·인동덩굴 등과 같은 약초가 산재해 있다.



**두벽이** 금백조로 백약이오름(211,212,721번)→탐방안내소

**승용차** 금백조로 백약이오름 간이 주차장

## 거미·문석이오름

금백조로를 탐방로로 하는 백약이오름과 등거리에서 들머리를 같이 하는 거미와 문석이오름이 지켜보고 있다. 오는지? 외면하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듯이 나중을 위해 가까운 곳보다 먼 곳을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을 먼저 탐방한다.

문석이오름 갈림길을 지나 목장길 따라 거미오름으로 간다. 타이어와 야자매트가 서북봉(해발250m)을 향해 시원하게 뚫어 놓은 나무계단이 하늘길을 달리는 은하철도처럼 뻗어있다. 손님이 많은 모양이다. 닳고 헤어진 야자매트가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다리 힘을 올려 단숨에 올랐다. 힘은 들었지만 그만큼 전경은 일품이다. !!! 오름과 오름이 서로 어울려 멋을 더하고 있다. 오른 계단만큼이나 내려와 반대편 북동봉우리로 또 오른다. 분화구 능선을 따라가면 남동봉우리에도 오르고 터진 분화구를 가로질러 오르면 서남봉우리에 오른다. 사방을 돌아가면서 앞으로 뒤로 숨겼다 내밀었다 하

백약이오름, 거미오름에서 보기





문석이오름과 거미오름

면서 봉우리와 전망을 보여주는 참으로 묘한 매력을 가진 오름이다. 봉우리와 분화구가 복잡하게 얽힌 모양새는 누가 빚었으며 등성을 따르는 곡선은 또 누가 그었는가? 4개의 봉우리에 3개의 굴부리를 이루는 복합형화산체 기슭에는 새끼오름과 빌레들이 차지하고 있는 참으로 관심 가질수록 묘미 있는 오름이다. 이름 또한 거문오름의 동쪽에 있다 하여 동검은이오름이라 하고 동그스름하게 층을 이룬 사면의 형태가 거미집과 흡사하다고 해서 거미오름으로 부른다. 표고도 340m(비고115m)로 등산하기 딱 좋은 높이이다.

거미오름을 내려와 임도에 억새 사이로 난 등산길에 이끌려 오르면 문석이오름이다. 잠깐만에 산등성이에 올랐다. 주변의 흰칠한 오름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는가. 트랙터 제초날로 억새를 베어 길을 내고 시원하게 열십자로 목초지를 조성한 초지가 오름 정상이다. 동서로 길게 뻗은 목초지는 자락에 탐방로를 내고, 남북으로 조성된 초지는 등성이와 분화구다. 3개의 봉우리를 이어가면서 완만한 등성이를 이루고 2개의 말굽형 분화구가 있는 곡선을 따라가면서 등산 아닌 산책하는 좋은 기분이었는 데 욕심이 화를 불렀다. 북쪽 등성이를 따라가면 높은오름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 것이 잘못이요, 길이 없는데도 되돌아오지 못한 것이 잘못이요, 살피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다. 북쪽 분화구 자락과 발 가장자리를 경계 짓는 건천을 건너면서 넝쿨에 걸려 처박히고도 정신 차린 것은 천만다행이다. 문석이가 보살펴주지 않았다면...아찔하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라. 순리를 따르자. 표고291.8m, 비고67m, 복합형 화산체다. 3개의 등성이에 에워싸인 2개의 말굽형 굴부리 일대는 광활한 초지로

산책길로 유혹하며 등성이와 굴부리가 2막 3장으로 펼쳐는 편안한 구성은 따라비와 용눈이오름 못지않다. 송당권 오름 왕국에서는 키 작지만 주변을 관망할 수 있는 어깨선을 아낌없이 내주는 인심 후한 오름이다.



**뚜벅이** 백악이오름 탐방후 금백조로 들머리에서 탐방소 970m

## 높은오름

문석이오름을 온몸으로 느끼고 양외뭇 가는 농로를 가면서 덩그러니 만나는 거미와 높은오름 안내판을 따라갔지만 묘지만 살찐지 탐방로는 오리무중이다. SUV 차량으로 탐방 오신 같은 처지의 서울 사장님과 같이 찾았다. 구좌공설공원묘지 입구가 탐방길이다. 보폭이 맞지 않아 앞질러 갔다가 정상에서 다시 만났다. 오랜만에 오름과 제주와 인생이야기로 마음을 텅트고 아부오름까지 동행해주는 고마움도 받았다. 친환경매트와 나무계단길이 삼나무·편백나무를 가르며 가파르게 올라 산담을 끼고 잠깐 숨을 고르고 억새밭을 지나면서 민동산 정상지기 좌우용암에 정상순환 탐방로 트레킹까지 허락받았다. 원형분화구 능선을 따라가는 정상탐방로는 높은 만큼 사방 전망을 보여주고 잘 단장된 아자매트길은 전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연속해서 녹화·편집할 수 있을 정도로 평탄하고 편한 산책길이다.

구좌읍 중산간 중심부에 우뚝 솟은 400m가 넘는 오름으로 동부권 제1봉으로 능선미가 유려하고 주위 오름보다 유난히 높게 보



높은오름, 거미오름에서 보기

여서 높은오름이라 한다. 표고(海拔)405.3m, 순수한 산높이(比高)175m. 3개의 작은 봉우리로 이뤄져 있고 가운데는 우묵하게 파인 원형분화구가 있다. 동부권 지역 오름의 랜드마크 다랑쉬와 용눈이오름,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는 거미오름을 지나 발길 따라 단장한 탐방로를 따라 높지만 낮게 오를 수 있는 오름! 정상에서 주변 오름을 전망할 수 있는 오름! 일찍이 노끈오름(高岳)으로 불리며 일대 오름의 우두머리 오름! 화산송이로 쌓여 원형보존이 잘된 오름! 이런 수식어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

**뚜벅이** 송당교차로 대물동산(211,212번) → 탐방소  
(구좌공설묘지입구) 2.5km

**승용차** 송당동1길에서 구좌공설묘지입구 간이 주차장

## 아부오름

동행해주신 고마운 분의 마음이었을까 손자와 고부간의 좋은 다정한 산행모습을 새기기도 전에 먼저 아부오름에 올랐다. 오르는 길은 완만한 경사를 가진 타이어매트길이고 정상순환 탐방로는

잘 단장된 편안한 아자매트길이다. 원형분화구(깊이78m)와 정상탐방로(화구륜1,400m)와 굴부리 안의 삼나무숲이 동심원을 그리고 송당마로와 함께하는 돌레길은 3겹의 동심원으로 퍼져나가는 인상적인 멋으로 단연 돋보인다. 남쪽 사면 초지로 이어지는 정상(표고301m)은 구좌와 표선의 오름군 전망을 눈높이로 보여주고 진한 초록이 내려앉은 목초지는 편안함을 준다. 북쪽 등성이는 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있으나 탐방 안내를 따르면 된다. 돌레길·송당마로를 초봄 고사리 장마 때 산책하신다면 아담한 아부오름과 목초지가 내미는 귀여운 고사리손을 잡을 수 있다. 둥근 산체를 따라 형성된 타원형 굴부리가 마치 가장이 좌장하고서 가정을 지키는 평온한 모습과 같다 하여 아부오름(亞父岳)이라 하며, 송당의 중심인 당오름의 남쪽(앞쪽)에 있다 하여 앞오름(前岳)이라고도 한다. 제주도를 소재로 한 영화(이재수의 난, 연풍연가) 촬영장소로도 유명하다.

**뚜벅이** 금백조로 아부오름(211,212, 810-1번) → 탐방소 510m

**승용차** 금백조로 아부오름 간이 주차장

아부오름 분화구





좌보미오름, 들머리에서 보기

## 좌보미오름

양팔을 벌려 알오름들을 껴안은 좌보미오름은 백악이오름탐방소에서 오르든 금백조로교차로에서 오르든 정결한 마음으로 남쪽 자락 마주 보는 알오름에 신고하고 양옆 알오름의 검문을 거친 다음 알현하라고 엄중히 명령하고 있다. 좌보미오름만 눈에 둔 무심한 오르미는 서성일로를 무작정 따라가다 목장에 들어섰고, 고사리꾼들과 한마음이 되었고, 휘둥그런 눈으로 힐끗힐끗 쳐다보며 핀잔주는 말들의 콧김소리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광활한 목초지의 고사리미아가 되어 있었다. 시간반이나 풀밭, 목초지를 헤매고 서야 남쪽 자락 알오름에 신고할 수 있었다. 마주 보는 알오름을 이어주는 야자매트탐방로는 닿고 닿아 다 헤어졌고 소나무숲은 갈비로 미끄럽다. 다정스럽게 내려오는 노부부와 인사하고 서쪽 알오름부터 올랐다. 서남쪽을 지키고 있는 산불감시초소는 헤매고 다닌 나의 모습을 보았다는 듯이 가상히 여기며 건너편 알오름은 땀마음 먹지 말고 길 따라 곧바로 가라고 일러준다. 동쪽 알오름은 오르미들의 등쌀에 겨우 살아남은 풀밭으로 남동쪽 전망을 보여준다. 주봉 동쪽 자락을 붙잡고 늘어진 망자들의 안식처가 북망산이며 명당임도 알려준다.

이제 마음을 정결히 하고 주봉으로 향한다. 다시 한번 주봉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양옆 알오름 검색대를 통과하고 탐방길을 따라 한다. 울창한 소나무, 삼나무, 편백숲으로 난 야자매트길은 공제선을 보여주며 산등성으로 인도한다. 정녕 우뚝 솟은 정상탐방로는 전망도 별다른 탐방의 묘미도 없이 등성이를 이어간다. 금백조를 뒷집 지고 북풍한설을 막아주며 남풍훈풍으로 새끼오름들을 아우르는 형국을 그려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성이를 따라 삼각점을 지나면 진달래를 키우는 용암이 정상을 대신하여 전망을 트며 좌보미오름의 진수를 보여준다. 양옆구리쪽에 검색 담당 알오름, 양 발꿈치에 마주 보는 알오름이 수문장 역할을 하고, 발치에 숨어있는 알오름은 척후병 역할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해발342m, 주봉 비고112m, 남쪽으로 벌어진 말굽형화산체이나 네댓 개의 알오름으로 복잡하다. 이런 상황이 좌보산左甫山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호랑이가 웅크린 형상이라 하여 좌범(左虎)이 좌

보미가 됐는 모양이다.

파헤쳐진 탐방로를 따라 오른쪽 옆구리 검색 알오름에 오르면 주봉도 보여주지 못하는 전망과 백악이오름으로부터 시작하는 탐방길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수문장과 척후병 위치도 알려주고, 멀리 표선공동묘지길과 이어주며 들머리도 알려준다. 산세와 분화구, 탐방로가 얹히고 설켜 좌보미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음이 사실이다. 이렇게 새긴대로 하산하였으면 됐을 것을 척후병 알오름마저 탐방한다는 욕심이 이리저리 성묘길에 이끌려 다니다가 공동묘지의 어떤 영혼에 이끌려 나도 모르는 어디론가로 하산하였다. 좌보미 미로에서 정신 잃고 나서야 어차피 한 번으로 끝날 탐방이 아님을 깨달았다.



**두박이** 금백조로 풍력생태길입구(211,212번) → 서성일로 탐방소 2km

**승용차** 좌보미오름 남쪽알오름자락 비포장 임도 변

## 궁대악 · 후곡악 · 돌미오름

주말 오후에는 비가 올 것이란 예보도 계획된 오름 탐방을 그만두게 하지 못했다. 제주를 사랑하는 오르미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름은 외롭지 않다. 조금 청승스런 홀아비 모습이지만 수산자연생태 마을에 왔다.

잔뜩 찌푸린 날씨는 해송과 억새 사이로 난 희미한 궁대악 탐방로마저 흐리고 있다. 탐방로가 아니니 당연하다. 해송과 편백숲 사이로 난 야자매트길과 나무계단이 탐방로이며 순환탐방로는 풍력생태길과 같이하고 있는 좋은 산책길이다. 급할수록 여유를 가지고 돌러가라고 했지 않았는가? 허리가 활(弓)을 닮은 표고238.8m의 궁대악은 북서향으로 넓게 벌어진 말굽형 분화구는 목초지로 개간되었고, 성읍공설공원묘지가 서쪽 자락에 붙어있다. 분화구 안에는 또 다른 둥그렇고 넓은 원형화구를 이루고 그 중앙에는 자그마한 알오름이 솟아있는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오름이다. 전 사면이 해송과 삼나무가 산체를 덮고 있으나, 탐방객의 마음을 활짝 열



고 수산생태마을에 안기도록 생태공원전망대가 사방을 열어준다. 구좌·표선의 오름 왕국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몽환적 산수화처럼 펼쳐진다.

금백조로교차로에서 동쪽으로 등을 돌려 북남으로 앉아 있는 오름이 궁대악과 후곡악이다. 후세의 두 오름의 기구한 운명도 닮았다. 분화구 자락이 공원묘지와 생태공원으로 개발된 궁대악, 동사면에 레미콘공장을 지고도 모자라 분화구 안은 농장을 차고앉은 후곡악 모습이 가상하다. 궁대악은 풍력생태길 초입이요, 후곡악은 마무리하는 곳이다. 잘 난 자동차길처럼 정상탐방로와 둘레길도 잘 단장되어 있다. 삼나무와 편백나무, 해송이 우거진 분화구 능성을 따라 야자매트와 안내줄이 등산을 안내하고 하산길은 나무계단으로 경사를 소화하고 있다. 서향말밭굽형 분화구로 뒤돌아 앉은 자락은 기름진 화산재로 발작물을 키워 살림살이를 늘려주고 있다. 표고206.2m, 비고36m의 정상도 인색하지는 않다. 멀먼 먼 대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오름 왕국의 전망을 헤아리면서 보여준다. 사면자락은 억새가 안내하는 비포장 농로·생태길로 둘레길 역할도 겸하고 있는데 수확이 끝난 무밭의 비상품들이 여기저기 뒹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월동무는 산삼과 같았는데...

순전히 감으로 돌미오름 간다고 간 것이 생태공원, 궁대악 가는 길이었기에 한 번 더 궁대악 전망대에 올랐다. 답하는 사람마다 돌미



돌미오름 정상과 전망

오름을 생소해 하니 찾아가는 길인들 오죽할까? 실은 고사리 꾀들이 술하게 드나들고 산책했던 곳이 돌미오름이라 하면 그래요? 하고 반문할 것이다. 오름 등성이가 돌아앉아 있기 때문일까? 아주 낮은 동서로 길게 돌아 드러누운 돌미오름은 자체 탐방보다는 풍력생태길에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수산 한 못 물을 가득 담은 보타백모양과 같은 등성이 산책길을 따라간다. 서쪽 봉우리에서는 풍력발전기 날개를 잡아 쥐고 손자봉, 월라봉, 일출봉과 함께 전경놀이를 즐기고, 북동향 말굽형 굴부리 안의 둥그런 화구호가 그려내는 계절 풍경을 감상하고 개간된 사면과 굴부리 자락을 한여름부터 겨울까지 초록으로 물들이며 시절을 알려주고 있는 월동무[늬뽕]를 떠올리면 어느새 물통 주둥이는 입가에 와 있다. 높이 311m, 비고82m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돌미오름 산책길에서 만나는 고사리와 야생화, 수크령과 역새터기들은 수산들의 사계절 풍력생태길과 잘 어울린다.



**뚜벅이** 금백조로 풍력생태길입구(211,212,721번)

**승용차** 금백조로교차로 주변 빈터

## 낭끼오름

수산들 풍력생태길따라 나섰다가 꼭짓점을 돌아 바람에 떠밀려 다시 금백조로를 만나고 포토존 서귀포호에서 인증샷 남기고 탐방길을 따라가면 낭끼오름 북사면 탐방입구다. 탐방길, 풍력생태길, 둘레길, 전망대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조림된 소나무, 삼나무 숲속으로 등산길과 나무계단이 제 역할을 다하고 나면 시멘트포장 둘레길이나 풍력생태2코스 산책길로 안내한다. 경방초소에 더해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나지막한 전망대는 눈높이로 이웃하는 오름들과 수산들의 멋을 보여준다.

남거봉이라 불리며 낭곳, 낭껏, 낭케오름으로도 부른다. 낭끼의 낭은 나무, 끼는 변두리를 뜻하는 말로 낭끼는 나무들이 서 있는 변두리라 할 수 있다. 산체는 남쪽에서 보면 사다리꼴을 띠고 서쪽에서 보면 산머리가 원뿔꼴을 띠면서 동쪽으로 길게 뻗어있다. 북동쪽기슭은 침식된 구릉지대로 뚜렷하지 않은 원형화구 흔적을 초지가 지워가고 있다. 남사면에 조림된 곰솔들은 줄을 지어 숲을 이루고 있다. 표고185.1m, 비고40m, 원형화구의 화산체로 탐방로와 둘레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과 전망을 함께 할 수 있다.



풍력생태길 2코스 수산한 못

## 자연생태공원과 풍력생태길

고려 때 목장장이 설치된 곳으로 물이 귀하여 물되라 하였고 수산진과 수산동굴, 한못, 꽃자왈이 공존하는 성산을 수산자연생태마을에 생태공원과 풍력생태길이 있다. 생태공원은 궁대악과 탐방길을 공유하며 안내소, 전망대, 곤충생태체험관, 조류관찰장, 야외학습장을 더하고 있다. 풍력생태길은 돌미오름부터 시작하여 남거봉-수산한못-후곡악까지 산책하는 1, 2코스와 단축코스가 있다. 탐스런 고사리들의 유혹을 따라 돌미오름에 올라 풍력발전기 날개에 따라 펼쳐지는 수산들을 조망하면서 바람 따라 떠밀려가는 풍력생태길이다. 돌산자락에서 풍력발전기를 양옆에 끼고 가는 들판에는 흙과 풀내음이 봄기운을 가득 채우고 고사리 꺾는 아낙들은 봄 처녀가 되어 멋을 더한다. 낭끼오름을 시야에 들이면서 반허리(1코스)를 돌았다. 곰솔을 따른 나무계단을 오르면 정상 전망대는 서쪽 한라산에서 동쪽 일출봉으로 이어지며 늘어진 수산, 송정의 멋진 오름 전망을 보여준다. 전망에 넋을 잃어 수산 한 못에는 지각했다. 목장을 질러가는 테우리-목장길은 고사리 장마로 한껏 귀여워진 고사리와 풀내음, 들꽃 내음에 우마 향기까지 멋들어진 수산들판의 봄기운을 만끽하면서 후곡악 남쪽자락까지 왔다. 역새로 뒤덮인 탐방로는 그 흔적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뽕한 길보다는 탐방객들에 의해 흔적을 찾아가는 멋을 더하고 있다고나 할까? 낮설지 않은 후곡악이다. 오늘은 남쪽 목재계단을 통해 정상 분화구능선을 따라 북쪽탐방로로 나왔다. 등성이를 지키던 곰솔들이 재선충으로 쓰러질 때까지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안 서럽다. 랜스레 옆에서 피톤치드를 내뿜는 삼나무, 편백나무도 오늘따라 알미웠다. 죽어나는게 조조군사-소나무라고...



**뚜벅이** 금백조로 풍력생태길입구(211,212번)

**승용차** 금백조로교차로 노면



## 연계 관광지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 나 어릴 적 그리운 추억들과 꿈이 모여 있는 곳! 고향을 떠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운 친구들과 어릴 적 뒤흔던 뒷동산이 그리울 때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이 손짓한다. 서울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어린 시절 안행열차를 타고 밤새도록 달려 맛있는 서울역과 서울 사람들도 추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갔던 어린 시절의 새록새록한 기억들도, 함께 했던 전우들도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에 가면 되살아 난다.



## 제주 문화

제주말 익히기:

**어드레! 짹광?**

어디 가세요?

**제주토속음식 접착뼈국**: 서귀포 표선면 성읍에 있는 한식 맛집으로 한식대첩에서 제주의 맛으로 유명한 집이다. 제주산 흑돼지구이, 갈치조림에 제주의 맛 접착뼈국이 토속맛을 더한다. 접착뼈국은 제주 향도음식으로 질 좋고 신선한 제주 흑돼지갈



비뼈[상부갈비뼈]에 무를 넣고 머리와 꼬리뼈를 제외한 돼지뼈를 온종일 정성 들여 고아 만든 육수로 두 번 끓인 다음 진한 국물을 위해 메밀가루를 풀어서 푹 끓이면 곰탕과는 다른 뽕안 걸쭉한 제주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해장국 접착뼈국이 입맛을 당겨준다. 배지근하다.



## 명소 들리기

**보름왓**: 보름왓은 제주도 방언으로 바람이 부는 언덕이라는 뜻으로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해 있다. 청보리, 메밀 등 먹거리를 가꾸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고, 철 따라 수국, 라벤더 등 예쁜 꽃향기로 유혹하며 요즘 인기를 끌며 핫플레이스로 등극하고 있는 중이다. 넓고 탁 트인 푸른 초원, 꽃밭에서 인생 사진도 찍고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 여유도 부려본다.



한라산 동남쪽 자락을 따라 아름다운 능선을 그리며 평온함과 부드러움, 자상한 보살핌까지 모성애 가득한 구좌·표선로를 왕국이 있다면 한라산 서북쪽 중산간에는 거칠고 강인한 남성미를 한껏 뽐내며 탐욕스런 인간들과의 자리다툼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텃새를 가진 오름 왕국 애월읍 봉성과 안덕면 광평 황야에서 북남으로 마주 보며 서로의 건강미를 뽐내는 오름들을 만나러 간다. 🌄